

Eugene Steel Tracker



철강비철금속 방민진

Tel. 02)368-6179 / mj.bang@eugenefn.com

Overweight(유지)

Recommendations

- ✓ **세아제강(003030)**
투자의견: NR
- ✓ **휴스틸(005010)**
투자의견: NR

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출 쿼터 해제

■ 최대 수혜: 대미향 강관 수출 회복

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 쿼터 해제를 허용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됨. 한국, 브라질, 아르헨티나 철강사들은 미국 현지 생산 부족 또는 품질 저하 이슈가 있는 제품에 한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됨. 쿼터가 해제되더라도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 함.

올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의 대미향 수출은 2015~17년 수출 평균의 70% 수준(268만톤)으로 동결된 바 있음. 이의 최대 피해는 사실상 강관이었음. 강관은 에너지용 시장이 2015년 말을 저점으로 회복세에 있었기 때문에 쿼터 물량이 2017년 수출량의 51%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임. 실제로 7월 누계 미국향 강관 수출은 전년동기비 -47.1%를 기록함.

반면 판재류는 2016년 말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로 이미 수출량이 급감해 있었기 때문에 쿼터 물량이 2017년 수출량의 111% 수준에 해당하였음. 7월 누계 판재 수출은 전년동기비 -2.5%에 그침.

쿼터와 관세 적용이 이루어졌음에도 강관은 여전히 미국 내 수요의 50%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급 부족 품목임. 따라서 이번 쿼터 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국내 강관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됨. 강관의 원소재인 열연강판 수요 부담도 완화될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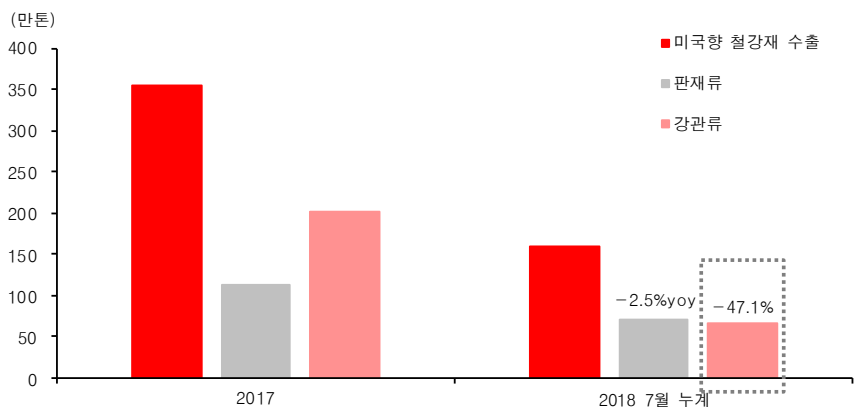
■ 철강업종センチメント 개선에 기여

미국의 쿼터 부과에 따른 강관 타격에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은 건조하게 유지되고 있음(7월 누계 -1.9%yoy). 이는 제 3국향 수출 확대 노력이 주효한 결과였음<도표 3>.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자국 내 유입 철강재가 많아진 제 3국 역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거나(EU) 검토토(인도, 캐나다, 러시아, 터키)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조짐이 있었음.

비록 미국의 수입 규제 해제가 일부 국가의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나 제 3국향 유입 물량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다소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함.

철강업종 밸류에이션 개선에 결정적 변수인 美-中 간 무역분쟁 완화 여부는 관찰이 필요하나 중국의 건조한 철강 수요와 다가오는 동절기 감산에 따른 업황 모멘텀에 기반한 이익 개선세를 감안할 때 저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는 판단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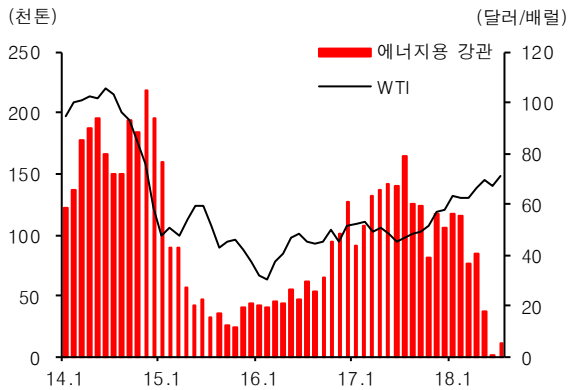
한국의 미국향 철강재 수출 추이



자료: 한국철강협회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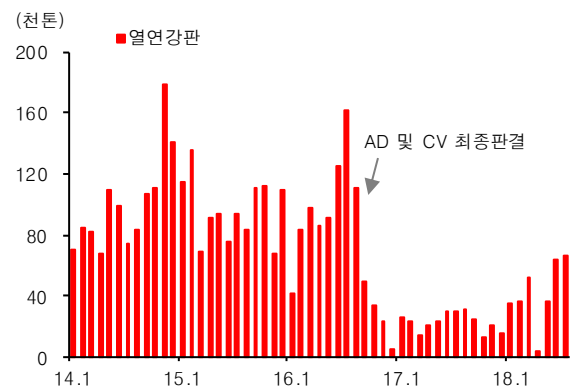


도표 1 한국의 대미향 에너지용강관 수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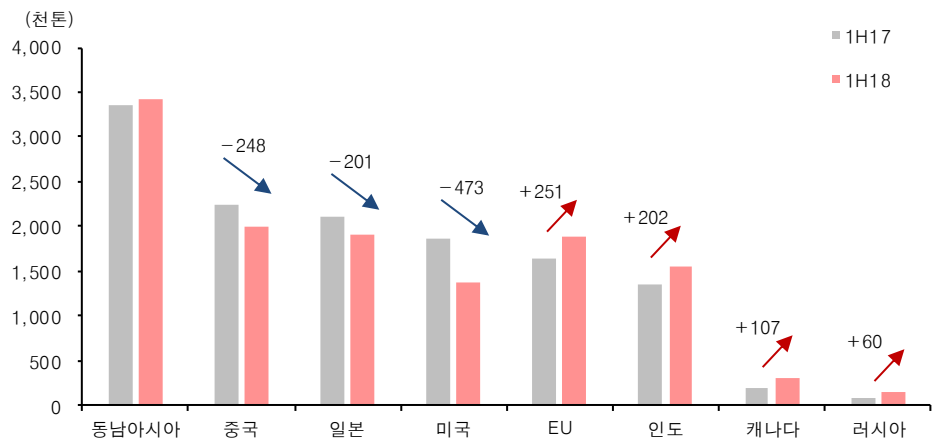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철강협회, 유진투자증권
주: 송유관+유정용강관 합산

도표 2 한국의 대미향 열연강판 수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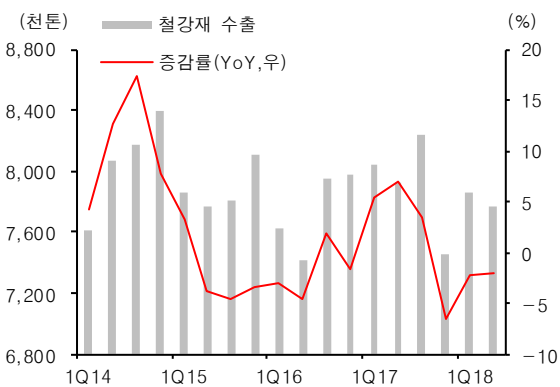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철강협회, 유진투자증권

도표 3 한국의 국가별 철강재 수출 증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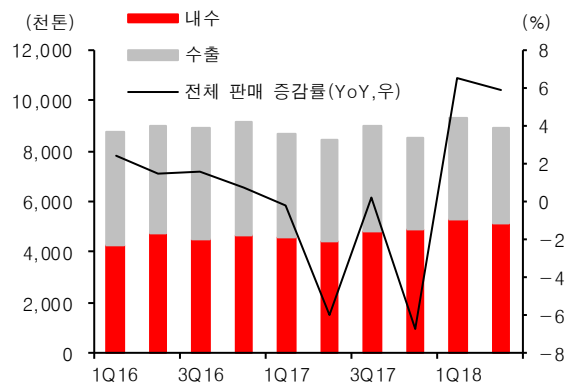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철강협회, 유진투자증권

도표 4 한국의 전체 철강재 수출 추이



자료: 한국철강협회, 유진투자증권

도표 5 POSCO 출하량 추이



자료: POSCO, 유진투자증권

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
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개월 (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

당사 투자의견 비율(%)

• STRONG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50%이상	0%
•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	89%
• HOLD(중립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	11%
• REDUCE(매도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미만	0%

(2018.06.30 기준)